



북한 기도회

2022년 1월 - 2월



기도제목1. 2022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년초부터 연달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이제는 18년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북핵 문제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루속히 한반도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되어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일지



- | | | |
|--|--|--|
| ① 2021년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 ②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 ③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유도탄 2발 발사 |
| ⑥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 | ⑤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④ 9월 11~12일 (위치 미상)
신형 장거리 (약 1500km)
순항미사일 발사 |
| ⑦ 30일 (위치 미상)
신형 반항공미사일
(지대공) 시험 발사 | ⑧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 |
| ⑩ 11일
오전 7시 27분 내륙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 ⑨ 2022년 1월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 |

자료 합동참모본부



기도제목2. 새로운 상황 변화에 선교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 전 북중 화물 열차가 운행을 재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북경 동계 올림픽 등을 기점으로 무역을 목적으로 한 대방이나 화교들의 왕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국경 개방 및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간 중단되었던 국경 중심의 선교사역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춘 여러 방식의 선교 접근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 있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상황에 맞는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경제난 속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흑독한 겨울과 여전한 국경 봉쇄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이제 북한 당국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적 배경으로 인해 오지로 추방되거나 광산 등 험한 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믿음의 가족과 후손들은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합니다. 본 선교회는 이분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며 북녘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 특히 신앙인의 후손 및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많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의 사역 및 여러 기관의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4.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월에 발표된 2022 오픈도어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에서 북한은 최악의 박해국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순위 변화가 북한의 박해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닌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북한의 박해지수는 증가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관련 단속, 검열 활동 강화를 비롯한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통제와 단속 속에서 북한 당국의 주요 색출/처벌 대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북녘의 형제자매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병마와 경제난,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오른팔로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고 관심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5. 제3국 체류 탈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총 6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입국자 229명 대비 72.4%, 2019년 1047명에 비해 94% 감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탈북자 입국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발이 묶인 탈북자들이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제 3국에서 체포와 복송을 당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선교단체나 선교사들, 현장의 사역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체포된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이기에 복송되었을 때 받을 핍박과 고난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숨어있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자 복송이 중단되고 체포된 탈북자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탈북민 출신 신자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북한 내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여러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식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정권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7. 국내정착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월 5일 20대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재입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다시 월북한 탈북민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명에 이릅니다. 올해 초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한국사회는 아무 연고도 없이 낮은 나이에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교회가 이들을 복음으로 품으며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통일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탈북민들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8. 북한선교를 위해 헌신된 종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선교현장에는 늘 준비되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희미하게나마 끝이 보이는 지금, 중단된 사역과 비어진 선교현장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교현장은 항상 수많은 장애물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일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뛰어 넘는 창의성과 역량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북한선교에 사명을 받은 종들이 성실히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북한선교에 헌신되었으며 현장을 위하여 준비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9. 북한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경은 봉쇄되었지만 복음을 실은 전파는 북녘을 향해 매일 밤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로부터 라디오 선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북녘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협력 기관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파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10. 남한의 대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한은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이슈의 재점화 등 다시금 요동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게 되는 만큼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가안보, 평화, 남북관계에 대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방안들이 개발되도록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 2:1-2).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